

광주시, 예산 370억 투입 '송정역 주차빌딩' 21일 착공

연면적 4만535㎡, 지상 7층 규모 차량 총 1580대 동시 주차가능 공사기간 1년4개월 '주차난' 우려

광주시가 '미니 용산역' 성격의 2000억 원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포기하는 대신 대체시설로 추진해온 대규모 주차빌딩이 오는 21일 첫 삽을 뜬다.

그러나 공사기간 1년 4개월 동안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전행과 시민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중교통 이용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9일 광주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된 데 이어 임시주차장까지 차례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21일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송정역 주차빌딩은 철근콘크리



광주송정역 대규모 주차빌딩

트 구조물로, 현재 제1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4만535㎡(1만2162평)에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지며 차량 158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제1주차장 현재 주차면적(401면)의 4배에 이른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0일(1년 4개월)이어서 2022년 10월, 추석 이후부터는 송정역 일대 주차난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부대

비용과 대체 주차장 조성비용까지 더해 총 370억원으로 철도운영 주체인 코레일이 전액 부담한다.

코레일과 광주시는 공사기간 동안 현재 운영 중인 제1주차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역 주변에 임시주차장 6곳을 확보했다.

임시주차장은 ▲역 앞 광장주차장

(129면) ▲후면 2주차장(80면) ▲3주차장(74면) ▲국유지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4주차장(120면) ▲5주차장(207면) ▲6주차장(107면) 등으로, 모두 합쳐 717면에 이른다. 임시주차장은 카드결제 전용으로,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에서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공사 기간 주차대란으로, 현재 후면 주차장을 더해 608면에 이르는 주차공간과 임시주차장 전체 규모에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임시주차장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주차난과 동선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송정역 이용객은 당초 1일 8000명으로 예상됐으나 2015년 KTX, 2016년 수서SRT 개통으로 주말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17년 2만2504명, 2018년 2만4507명, 2019년 2만5646명으로, 당초예상을 크게 웃들면서 송정역 일대는 수 년째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시는 공사 기간 교통난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과 셔틀열차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인근 광주역·극락강역·평동역 주차장을 이용한 후 광주역~송정역 간 셔틀열차나 평동역~송정역 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안이 교통량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광주역~극락강역~송정역 셔틀열차는 1일 30회 운행되며, 소요시간은 15분이다.

광주시도 칼라유도선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박남언 교통건설국장은 "주차빌딩은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완공되면 주차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불편과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광주광역시체육회, 법인설립 완료

법적지위 보장 법인으로 새 출범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이상동)가 법정 법인화 업무를 마무리하고 법적 지위가 보장된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시체육회 법인설립은 지난해 민선 지방체육회 시대가 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추진된 것이다.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가 대부분 법인설립을 완료했으며 법 시행일은 9일이다.

시체육회는 올해 초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정 법인화 업무를 추진해왔다. 또 창립(발기인)총회를 열어 정관, 임원선임 등을 의결하고 광주시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최종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시체육회는 그동안 임의단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시체육회가 법인으로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범시민 생활



광주광역시체육회

체육 운동 전개, 회원단체 사업 지원, 국내외 대회 지원, 체육인 권익 증진, 전문생활학교체육 진흥, 체육시설 관리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동구 등 5개 자치구 체육회도 법인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구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광주광역시체육회가 법률에 근거한 법인설립으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었다. 새출발하는 만큼 시민과 선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생각의 전환'으로 깨어있는 체육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여수시, 24일 'NCS 취업특강' 운영

공공기관 취업준비 청년 대상 실시

여수시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달 24일 2021년 상반기 NCS 취업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 특강은 'NCS 핵심 POINT 잡기'라는 주제로 해커스 공기업 취업 전문 대표 컨설턴트인 윤종혁 강사가 맡아 진행하며, 약 3시간 동안 NCS에 대한 이해 및 준비방법, 주요 공공기관별 채용 트렌드와 채용절차 등에 대해 안내한다.

참여대상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수시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23일까지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에서 신청하거나, 중앙쇼핑 2층 청년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참가자 관리를 통한 특강 집중도를 높이고자 상·하반기로 분리해 6월과 11월에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전남)=김용희 기자 jjiacecom@

상주시 "몸에 좋고 맛 좋은 '베리' 맛보세요"

코로나19 상황 고려 베리축제 취소 하나로마트 연계 홍보·판매행사 마련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와 베리축제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년 6월 중순 열리던 베리축제를 취소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 상주 하나로마트와 연계한 홍보·판매행사를 마련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상주 하나로마트 야외판매장을 방문하면 농가들이 재배한 고품질의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산딸기를 평소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상주의 경우 넓은 재배 면적에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매년



블루베리

6월에는 오디(Mulberry), 복분자(Korean Blackberry), 블루베리(Blueberry), 산딸기(Raspberry) 등 다양한 베리류를 출하하고 있다.

상주에서 생산되는 베리류는 품질이 좋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전국으로 출하되면서 소비층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베리류는 적색, 자색, 청색을 만드는 폴리페놀 화합물인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들어 있어 다량 섭취할 경우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페놀산, 탄닌 성분 등이 들어 있어 어떤 과일보다도 항산화 성분이 많다. 연구 결과 항염증, 비만억제, 심장병 예방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용택 기술보급과장은 "베리류 재배 농업인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주 베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영암군,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 선정

배움 마을학교 등 총 3건

발군의 평생학습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암군이 '2021년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사업'에 3건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증가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사각지대 없는 배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에서는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배움 마을학교'와 '위풍당당! 신중년 남성학교', '장애인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을 발굴, 제안하여 3건 모두 최종 심사에서 선정됐다.

특히,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풍당당! 신중년 남성학교'는 그동안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남성들의 다양한 욕구와 활동성을 반영한 실습위주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오는 하반기부터 '드론 운영 전문가 과정'과 'DIY 이동식 전원주택 짓기'를

개설하여 40명의 대상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러 가지 여건 상 평생교육에 참여가 어려웠던 농촌마을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신덕정(군서면) 배움마을 학교를 3개월 운영하고,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정리수납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평생교육 등에 대한 평생학습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평생학습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4월에도 교육부의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정방문형 문해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대학생 대상 행정체험 실시 장성군, 참여자 60명 모집

장성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일자리와 근무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장성군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29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대학 재학생이다.

모집인원은 총 60명으로 사회배려계층을 우선 채용한 후, 나머지 인원은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기록물 정리, 현장 근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1기는 7월 5~16일, 2기는 7월 19~30일까지 운영되며, 하루 5시간 근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장성군청 누리집(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성(전남)=김태수 기자 ts7080@